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곽윤경^{1*}

¹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Youn-Kyoung Kwag^{1*}

¹Department of Nursing, Yo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의 예측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T광역시에 소재하는 3개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생 437명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1년 10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가 인식하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변인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0.4%였으며($F=6.732, p=.010$), 특히 자존감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32.2% 설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beta =.362, p<.001$).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간호교육과정 개발시 간호대학생들의 자존감을 고려할 것과 간호대학생들의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level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and to explore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school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Subjects were 437 nursing students of three different college which are located in Taegu cit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9th to November 27th, 2011.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higher Self-Esteem, the higher Ego-Resilience and the higher Social Support are the better School Adjustment to nursing student. And it was found that the effects of Self-Esteem,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was 40.4% and Self-Esteem had the greatest influences on their school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need to consider student's self-esteem in nursing curriculum and prepare to develop programs for advancement of self-esteem to help nursing students' School Adjustment.

Key Words : Adjustment, Ego-Resilience, Self-Esteem, Social Suppor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OECD 국가들을 비롯 많은 국가들은 간호사 인력부족에 대비해 간호대학생 수를 늘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2008년 11,645명, 2011년 15,359명으로 최근 4년간 4,185명 증원을 통해 양

적 공급이 확대되었다[1].

학업 및 동아리 활동, 진로선택 및 취업활동, 대인관계 등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이 보다 많이 요구되는 대학생활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성장의 기회인 동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교과과정과 학업부담이 과중하고,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Corresponding Author : Youn-Kyoung Kwag(Yo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Tel: +82-53-650-9772 email: k100479@ync.ac.kr

Received March 11, 2013 Revised (1st March 29, 2013, 2nd April 24, 2013, 3rd April 29, 2013) Accepted May 9, 2013

심리적 특성을 지닌 대상자나 보호자와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실습을 수행해야 하며, 교육과정 내내 의료인으로서 과학적 지식에 따른 의사결정, 정확하고도 신속한 업무수행, 엄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노출되는데, 이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생활적응이 보다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간호대학생들 중 자존감 저하, 정서적 변화,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2], 이러한 간호대학생들의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실력과 인성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것은 간호교육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자존감은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므로, 다양한 간호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기본이 되는 내적요인이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전반적 학과 적응을 다룬 질적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적응에는 간호대학생 개인의 인식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3].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자존감에 관한 선행양적연구들은 전반적 대학생활적응이 아닌 대학생활적응의 일부 영역에 해당되는 정신건강, 학업성취도, 대인관계, 만족도 등의 변인들과 자존감의 상관을 다루고 있어[4,5,6],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전반적인 대학생활적응과 자존감과의 관계와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존감이 개인의 내적요인이라면 환경과 개인의 상호요인이 되는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내·외부 문제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 상황 재구성 능력, 유연하게 대처하는 특성을 말한다[7].

간호대학생들은 다양한 연령의 간호대상자들이 가진 질환 및 장애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대상자들의 간호문제를 진단하여, 최선의 간호계획을 세워 정확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교육된다. 이를 위해 오늘날의 간호교육은 강의식 교육 외에도 문제해결중심학습법(Problem Based Learning), 가상사례를 이용한 Simulation 실습, 표준화 환자(Standard Patient)를 이용한 실습 등을 활용하고 있어 이러한 다양한 교육매체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는 간호교육환경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유연한 대처능력은 간호대학생들의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한 자아탄력성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어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소수의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인문사회대학생보다 낮고 자신감, 낙관적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3],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간호대학생들은 타 전공학생에 비해 전공과목 학습이 입학과 동시에 일찍 시작되므로 전공학습 부담감이 보다 크며, 학교 강의실에서의 이론교육 외에 3교대의 임상실습을 하게 되면서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보다 높기 때문에 교수, 가족, 선배 및 후배, 동급생들의 도움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개인의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도움과 원조를 사회적 지지라 하며[8], 이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생리적 측면의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켜 개인의 환경적응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9].

실제로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한 학생들이 인식한 사회적지지 수준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높고[10], 대학신입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11],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주요 매개변수로 인지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로서 특수한 교육환경에 처하게 되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목적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마치고 전문직간호사로 성장하도록 돕기위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의 수준을 확인하고 이들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D시 소재 3개 전문대학 간호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437명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에 동의한 43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2011년 10월9일 배부하여 11월 27일까지 수거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43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자존감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

치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12].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전반적인 자기개념과 관련된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존감 척도를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변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13]. 총 10문항의 본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전적으로 그렇다”로 평정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도구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전체 .831, 긍정적 자존감 .794, 부정적 자존감 .703이었다.

2.2.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외상 등 변화하는 상황의 요구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조절과 대처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4]. 본 연구에서는 “기술습득에 대한 적극성(Acute skill acquisition)”, “미래 지향성(Future orientation)”, “독립성/위험감수(Independence/Risk Taking)”의 세 영역으로 자아탄력성을 측정한 Jew(1991)의 도구를 변안한 김정득(2003)의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15]. 이 도구는 총 45개의 각 문항을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로 평정하는 6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전체 .892, 기술습득의 자신감 .754, 미래지향성 .850, 독립성/위험감수 .598이었다.

2.2.3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란 인간의 적응적인 발달을 장려하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와 교류에서 충족될 수 있는 긍정적인 정보와 자원을 의미한다[8].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지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이 도구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 정보, 물질, 평가의 4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척도는 각 지지행위 문항에 대해 “모두에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에서 “모두에서 그렇게 느낀다”로 평정되는 Likert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전체 .956, 정서적지지 .872, 평가적지지 .852, 정보적지지 .895, 물질적지지 .868이었다.

2.2.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은 대학의 학문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대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는 과정이다[16]. 본 연구에서는 Baker와 Siryk(1984)의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에서 변안한 도구로 사용한 점수를 의미한다. 이 척도는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의 네 영역을 총

67문항 9점 Likert양식으로 평정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전체 .927, 학업적응 .852, 사회적응 .808, 개인-정서적응 .793, 대학생활환경적응 .844이었다.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빈도 분석하였고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총점,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은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Tucke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0.36세였고, 성별은 남자가 10.2%, 여자가 89.8%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53.1%, 2학년이 26.2.5, 3학년이 20.6%로 나타났으며, 종교를 가진 경우는 33.6%, 종교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66.4%였다. 경제상태는 “상” 1.4%, “중” 83.8%, “하” 4.6%로 나타났으며, 평균학점은 3.0미만 14.9%, 3.0이상 4.0미만 74.2%, 4.0이상 10.9%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31)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 M
age		20.36±2.53
gender	male	44(10.2)
	female	387(89.8)
grade	1st	229(53.1)
	2nd	113(26.2)
	3rd	89(20.6)
religion	have	145(33.6)
	have not	286(66.4)
live with families	yes	329(76.3)
	no	102(23.7)
economic state	high	6(1.4)
	medium	361(83.8)
	low	64(14.8)

health state	high	182(42.2)
	medium	229(53.1)
	low	20(4.6)
grade point average	under 3.0	64(14.9)
	more than 3.0~under 4.0	320(74.2)
	more than 4.0	47(10.9)

3.2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수준

본 연구대상자의 자존감 평균은 전체 29.89점(/40점), 긍정적 자존감 13.28점(/20점), 부정적 자존감 16.61점(/20점)이었다. 자아탄력성 평균은 전체 195.0점(/270점), 기술습득 자신감 64.6점(/90점), 미래지향성 69.2점(/90점), 독립성/위험 감수 61.19점(/90점)이었다. 사회적지지 평균은 전체 97.95점(/125점)이었으며, 정서적지지 27.28점(/35점), 평가적지지 23.48점(/30점), 정보적지지 23.89점(/30점), 물질적지지 23.30점(/30점)이었다. 대학생활적응 평균은 전체 360.41점(/603점), 학업적응 122.89점(/216점), 사회적응 116.56점(/189점), 개인정서적응 77.37점(/135점), 대학환경적응 90.79점(/135점)이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라 전체 사회적지지($t=-2.189$, $p=0.014$), 정서적지지($t=-2.559$, $p=0.011$), 물질적지지($t=-2.094$, $p=0.041$)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유무에 따른 대상자들의 사회관련적응 및 대학환경적응 수준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668$, $p=0.008$)

($t=-2.208$, $p=0.029$). 가족과의 동거여부에 따른 긍정적 자존감, 사회관련적응, 대학환경적응 수준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369$, $p=0.019$)($t=-2.578$, $p=0.011$)($t=-3.581$, $p=0.000$). 학년에 따라서는 미래지향성과 정서적지지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044$, $p=0.018$)($F=5.419$, $p=0.005$)[Table 3].

[Table 2]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djustment to College (N=431)

Variables	M(sum)±SD	max	min
Self-Esteem	29.89±4.67	40	16
positive	13.28±3.08	20	5
negative	16.61±2.34	20	8
Ego-Resilience	195.00±18.13	248	131
acute skill acquisition	64.60±6.65	83	44
future orientation	69.20±7.99	90	42
independence /risk taking	61.19±5.99	78	45
Social Support	97.95±13.99	125	63
emotional	27.28±4.16	35	14
evaluational	23.48±3.75	30	14
informational	23.89±3.81	30	12
material	23.30±3.78	30	12
Adjustment	360.41±50.81	551	245
academic	122.89±20.39	200	61
social	116.56±117.30	169	81
emotional	77.37±14.98	126	34
circumstantial	90.79±15.79	131	51

[Table 3] Differences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Colle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M ± SD		t/F	p	Tukey	
	male(n=44)	female(n=387)				
gender						
social support	3.743 ± .576	3.937 ± .554	-2.189	.029		
emotional support	3.681 ± .584	3.922 ± .590	-2.559	.011		
material support	3.693 ± .634	3.904 ± .626	-2.094	.041		
religion	have(n=144)	have not(n=286)				
social adjustment	5.278 ± .758	5.664 ± .826	2.668	.008		
circumstantial adjustment	5.762 ± 1.020	6.173 ± 1.046	2.208	.029		
live with families	yes(n=329)	no(n=102)				
positive self-esteem	2.614 ± .588	2.792 ± .685	-2.369	.019		
social adjustment	5.336 ± .636	5.662 ± .888	-2.578	.011		
circumstantial adjustment	5.646 ± 1.028	6.268 ± 1.004	-3.581	.000		
grade	1st(n=229)	2nd(n=113)	3rd(n=89)			
future orientation	4.662 ± .543	4.624 ± .479	4.474 ± .548	4.044	.018	a,b>c
emotional support	3.827 ± .616	4.049 ± .504	3.886 ± .609	5.419	.005	a,c<b

[Table 4] Correlation among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College.(N=431)

* $p < 0.05$ ** $p < 0.01$

Variables	SE	SE1	SE2	ER	ER1	ER2	ER3	SS	SS 1	SS 2	SS 3	SS 4	AC	AC 1	AC 2	AC 3	AC 4
SE	-																
SE1	.145**	-															
SE2	.351**	.483**	-														
ER	.522**	.556**	.665**	-													
ER1	.452**	.568**	.600**	.901**	-												
ER2	.593**	.338**	.581**	.894**	.710**	-											
ER3	.288**	.604**	.573**	.835**	.672**	.586**	-										
SS	.376**	.201**	.388**	.525**	.503**	.507**	.355**	-									
SS1	.423**	.183**	.391**	.506**	.475**	.518**	.315**	.900**	-								
SS2	.447**	.141**	.261**	.418**	.389**	.426**	.264**	.298**	.326**	-							
SS3	.305**	.204**	.358**	.462**	.461**	.426**	.309**	.906**	.722**	.235**	-						
SS4	.301**	.154**	.322**	.443**	.408**	.432**	.311**	.891**	.711**	.250**	.786**	-					
AC	.569**	.113	.317**	.530**	.509**	.562**	.291**	.401**	.437**	.561**	.321**	.323**	-				
AC1	.480**	.061	.204**	.446**	.421**	.464**	.265**	.287**	.313**	.526**	.229**	.234**	.871**	-			
AC2	.566**	.295**	.460**	.645**	.644**	.588**	.531**	.540**	.539**	.459**	.497**	.473**	.851**	.632**	-		
AC3	.461**	.017	.124	.279**	.285**	.343**	.069	.253**	.268**	.422**	.193**	.208**	.755**	.526**	.547**	-	
AC4	.514**	.190	.370**	.581**	.581**	.599**	.377**	.479**	.563**	.363**	.431**	.391**	.834**	.649**	.793**	.514**	-

SE Self-Esteem ER Ego-Resilience SS Social Support AC Adjustment to College
 SE1 positive self-esteem ER1 acute skill acquisition SS1 emotional support AC1 academic adjustment
 SE2 negative self-esteem ER2 future orientation SS2 evaluational support AC2 social adjustment
 ER3 independence/risk taking SS3 informational support AC3 emotional adjustment
 SS4 material support AC4 circumstantial adjustment

3.4 대상자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자존감은 자아탄력성($r=0.522, p<0.01$), 사회적지지($r=0.376, p<0.01$), 대학생활적응($r=0.564,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r=0.291, p<0.01$)를 나타냈고, 자아탄력성은 사회적지지($r=0.525, p<0.01$), 대학생활적응($r=0.530, p<0.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지지도 대학생활적응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401, p<0.01$)[Table 4].

3.5 대상자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자존감이 높을수록($\beta=.627, p<.001$),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beta=.507, p<.001$), 인식하는 사회적지지 수준 또한 높을수록($\beta=.254, p=.010$)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세 변인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0.4%였다($F=6.732, p=.010$)[Table 5].

[Table 5]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to College. (N=431)

Variables	B	β	t	p	AdjR ²	VIF
Self-Esteem	.627	.386	8.750	.000	.322	1.402
Ego-Resilience	.507	.269	5.599	.000	.396	1.663
Social Support	.156	.116	2.595	.010	.404	1.409

4. 논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자존감 평균 29.89점(평균 평점 2.99)은 간호학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35.74점, 3.72보다 낮은 점수이며 [17,18], 2, 3, 4학년 4년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점수 3.03과는 유사한 결과이다[19]. 이러한 결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학하게 된 간호대학 신입생 시기의 자존감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자존감은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자존감 변화를 확인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자아탄력성의 평균 점수 195.0점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197.37점과 비슷한 수준으로[20], 본 연구대상자인 전문대학 간호대학생들이 어려움과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4년제 일반대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영역별 순으로는 미래지향성 69.20점, 기술습득 적극성 64.60점, 독립성/위험성감수 61.1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은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전공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데 적극 노력하지만 사회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독립성이나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 용기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신입생 비율이 53.1%인 것을 고려할 때, 전문간호직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입학하여 전공에 대한 호기심이 높지만 미지의 상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함께 가지는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심리적 특성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실무수행과 원칙준수가 강조되므로 다소 경직적인 간호학 실무교육의 특성 또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들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는 전체 평균 97.95점(78.36/100점)으로 전체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여대생 98.9점, 남자대학생 97.8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8]. 백분위 환산점수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별 수준을 비교했을 때는 간호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정보적지지가 79.63 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평가적지지 78.26점, 정서적지지 77.94점, 물질적지지 77.6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대학생들이 인식한 사회적지지가 하위요인 별로 보았을 때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21]. 즉 일반대학생들은 사회적지지 중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느끼는 정서적지지 인식수준이 높았지만, 간호대학생들은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정보적지지 인식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주위로부터의 도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계속되는 간호대학생들의 증원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관심으로 격려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지도교육의 한계와도 관련 있겠지만, 간호대학생들이 힘겹게 여겨지는 빡빡한 교과과정과 임상실습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내 뭉’ 즉 ‘간호학과라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견뎌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과도 관련될 수 있다[3].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과 관련한 어려움을 수동적으로 개인이 떠안고 가야만 하는 내적문제로 간주하기보다 노출하여 구체적 어려움을 규명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대학생활적응은 전체 평균 360.41점(평균 평점 4.8)(59.77/100점)으로 4년제 일반대학생들의 390.92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3년제 간호대학신입생들의 2.9점보다 높은 점수이다[20,22]. 백분위점수를 토대로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영역을 순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대상자들은 대학환경적응이 67.2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개인정서적응 57.31점, 사회적응 61.67점, 학업적응 56.89점 순으로 나타나, 학업적응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적응, 대학환경적응, 개인정서적응이 높게 나타난 일반대학생들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20]. 특히 일반대학생들에서는 학업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간호대학생들에서는 학업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간호대학생들이 학업적응을 보다 어렵다고 인식하는 본 결과는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엄격한 교육과정, 과중한 학습량, 임상실습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타 전공대학생에 비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23]. 즉 간호교육과 관련한 높은 육체적 심리적 부담이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적응을 보다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간호교육의 어떤 구체적 요인들이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적응과 관련이 있는지는 추후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라 인식하는 사회적지지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여자 간호대학생들에 비해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보다 더 낮았다. 연구참여자의 성별 비가 균등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이는 지금까지의 간호교육과정이나 교육설비 및 기자재 등이 절대 다수인 여학생들을 초점으로 하고 있어 소수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거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간호학과 남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간호대학생들이 종교를 가진 간호대학생들보다 사회관련적응 및 환경관련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종교성은 개인의 적응에 도움이 되며, 영적 안녕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심리적 안녕감,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 성장에의 안녕 가능성이 높다고 한 보고들과는 차이가 있었다[24].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들인 대학생들은 발달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형식적 조작성능력의 발달로 보다 추상적이고 고차원적 사고를 통해 이전까지의 자신의 종교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자신의 종교에 대한 전통적 신념을 감소시키고 개인적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종교적 신념의 혼란기적 특성이 대학생들의 사회적 및 대학환경적응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대상자들이 가족과 동거하는 대상자들보다 긍정적 자존감, 사회관련적응, 대학환경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은 대학생들은 부모와 동거하는 대학생들보다 심리적으로 보다 성숙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25] 간호대학생들의 자존감증진과 대학적응에는 보호적 요인보다는 독립적 요인이 보다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에 따라서는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미래지향성이 1, 2학년에 비해 3학년에서 보다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1, 2학년에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가졌을 간호전문직인으로서의 막연한 기대가 3학년 졸업반이 되면 축적된 실습경험과 취업문제에 직면하며 간호현장과 자신에 대한 보다 현실적 시각을 갖게 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1, 3학년에 비해 2학년들이 인식한 정서적 지지 수준이 보다 낮은 것은 신입생은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그리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취업문제에 인해 지도교수, 동료, 가족들과 보다 깊은 유대를 갖게 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은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와 모두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가장 높은 관련을 보인 것은 자존감이었고 그 다음이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순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는 개인내적요인이 가장 큰 상관을 보인 반면 외적 요인이 가장 적은 상관을 보였다. 이를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장점과 취약점을 자각하게 하고 문제 및 위기상황에 대한 건강한 대처를 통해 자기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당면상황에 대한 직접적 지지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40.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732, p=.010$). 특히 자존감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32.2% 설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beta=.386, p<.001$). 이는 일반대학생들에서 자존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직·간접 변수라고 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26]. 그러나 간호대학 신입생의 경우 학교생활만족도가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

타난 선행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어[27] 간호대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년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증진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 자기인식을 돕는 교육과정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증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자존감은 평균 29.89점(74.73/100점), 자아탄력성 평균 195.0점(72.22//100점), 사회적지지는 평균 97.95점(78.36/100점),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360.41점(59.79/100점)이었다. 간호대학생들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적응을 40.4% 설명하였으며, 특히 자존감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32.2% 설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의 적응능력 증진이나 환경적 지지 보다는 그들의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효과적 접근 전략이 될 수 있음이 제시된 바, 간호교육현장은 교육과정 전반에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 자기인식을 도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

- [1] S. M. Kim, Y. J. Noh, J. I. Kim, & J. S. Park. "A plan for Expansion of Jobs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abor in Health care department", Economics &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Report. 2010.
- [2] R. H. Hwang., "A study on eating disorder, body image and self-esteem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15(4), pp. 328-335, 2009.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09.15.4.328>
- [3] S. Y. Min, "Adjustment experience of students in

- nursing education", *Journal Korean Academy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ing*, 15(4), pp.409-419, 2006.
- [4] M. S. Song, H. J. An, & Y. H. Chung,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 and Communication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5(1), pp. 40-48, 2010.
- [5] H. I. Lee,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2(1), pp. 97-107, 2008.
- [6] M. J. Jung, & J. Y. Kim,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 *Korean Journal Stress Research*, 19(3), pp. 253~260, 2011.
- [7] W. J. Park,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Learning styles, and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y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ing*, 18(3), pp. 240-250, 2009.
- [8]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1985.
- [9] O. H. Lee,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 pp. 29~57, 2012.
- [10] Halanmandaris, K. F., & Power, K. G. "Individual differences, social support and coping with the examination str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pp. 665-685, 1999.
DOI: [http://dx.doi.org/10.1016/S0191-8869\(98\)00172-X](http://dx.doi.org/10.1016/S0191-8869(98)00172-X)
- [11] E. J. Kim, J. Y. Lee, & K. J. Oh, "The effects of self-perceptio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behavior on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2.
- [12]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3] H. J. Lee, & H. T. Won,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Paranoia, Self-Concept and Self-Consciousnes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eoul, South Korea. 1995.
- [14] C. J. Jew, K. E. Green, & J. Kroge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resilie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2, pp. 75-89, 1991.
- [15] J. D. Kim, "Resilience of Adolescent Children with Problemated Drinking Par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2003.
- [16] R. W. Baker, & B. Siryk, "Measuring academic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pp. 179-189, 1984.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31.2.179>
- [17] B. N. Park, J. S. Park, & J. R. Lee,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among nursing Junior college freshmen",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Statistics*, 34(2), pp. 153-164, 2012.
- [18] K. H. Yang, J. R. Lee, & Park, B. N.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Freshmen Enrolled in Nursing at a Junior Colleg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pp. 5-13,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05>
- [19] H. S. Park, Y. J. Bae, & S. Y. Jung,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1(4), pp. 709-724, 2002.
- [20] B. O. Choi, "Effect of the college students' resilience belief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the students' daily hass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6.
- [21] H. J. Kim,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nxiety-the interac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 University, Seoul, 2009.
- [22] H. J. Cho & H. I. Chung,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1(3), pp. 188-196, 2012.
- [23] J. Y. Park, "Stress, Stress reponse and influencing factors on Resilience among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nam University, Jeonlabukdo, 2011.
- [24] H. R. Hwang, H. H. Suh, & J. Y.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6(4), pp. 709-724, 2011.
- [25] O. K. Jung, "The Influence of Family-Environment upon Psycho-Social Maturity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2006.
- [26] J. L. Deborah, C. Gustavo, & Scott C. Roesch,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ce, 27(6), pp. 703-716, 2004.

DOI: <http://dx.doi.org/10.1016/j.adolescence.2004.05.005>

- [27] B. N. Park, J. S. Park, & J. R. Lee,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among nursing Junior college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tatistics, 34(2), pp.153-164, 2009.
-

곽 윤 경(Youn-Kyoung Kwag)

[정회원]



- 2005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